

자금난 허덕이는 서민에 햇살 비추나

햇살론·미소금융 이어

새희망홀씨도 내달 출시

서민전용 대출 증가세

은행권이 최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히 이미 출시된 '미소금융', '햇살론'과 함께 서민들의 힘든 자금난에 햇살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과 금리 수준은 비슷하면서도 대출 조건은 완화돼,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설이거나 제2금융권을 거웃거리며 가슴졸이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대상 확대=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출 대상으로 한다. 또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희망홀씨대출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대출을 했던 것에 비해 대출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이라도 3개월 이상 연체나 부도, 대위변제, 세금·과태료·고용보험료 체납 등이 있거나 금융채 무불이행자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햇살론(연 8~13%)과 비슷한 수준인 11~14%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별 대출한도는 2000만원까지며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용으로 빌려준다.

은행별 전산개발과 내규정비 등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 임직원들은 5일 오후 총장축제가 펼쳐지는 총장로 인근에서 '서민은 웃게 희망은 크게'라는 슬로건 아래 서민금융지원제도 알리기 캠페인을 벌였다.

다음달 16개 은행이 자체 상품을 내놓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 제대로 활용하려면=미소금융은 대출금리가 4.5%로 고정돼 있어 금리면에선 단연 으뜸이다.

하지만 자금용도가 창업과 사업자금으로 제한돼 있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재산이 일정수준(대도시 1억3500만원, 기타 도시 8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대출조건이 까다롭다.

또 전국 미소금융재단이 60개에 미치지 못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단점이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햇살론'의 경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 맞

게 대출 대상이나 자금용도 제한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농부, 어부 등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도 사업운

영자금(2000만원), 창업자금(5000만원), 생계자금(1000만원)에 따라 다르며 신용등급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금리는 각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저축은행의 상환금리가 연 13.1%로 가장 높다. 신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서는 연 10.6%로 정해졌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시중 16개 은행의 전국 지점만 1만개가 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햇

살론' 대출을 받지 못했던 신용등급 5등급자를 비롯해 연소득이 2000만~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새희망홀씨대출'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또 긴급생계 자금의 경우 '새희망홀씨대출'이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한편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권 대출이 힘들어 대부업체나 캐피탈 등에서 연 20~49%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의 전환대출제도를 활용해도 좋다.

전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연 9.5~13.5%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형마트 입점 저지로 생존권 지키다”

중소상인들 오늘 북구 향의방문...전교조와 연대투쟁도

광주 북구청이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중소상인단체는 6일 오후 2시 북구청을 향의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단행

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공사가 진행되면 소음·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인근 고려중·고교생들의 학습권도 크게 침해될 수 있다며 전교조 등과 연대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장기한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장은 “북구청이 상고 포기 이후에는 대형마트 개발업체와 지역 중소상인의 '만남'을 주

선하는 등 지역 상인들을 두번 죽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북구청 향의방문, 북구청장실 점거농성, 천막농성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형마트 입점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인근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로 인해 주변침하 등의 문제가 생길 것까지 우려하고 있다”며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일반건축과 관계자는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S법인과 지역중소상인들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것도 건축허가가 떨어지기전 양측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협의하라는 의미에서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이번주까지 S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을 검토를 한 후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무등록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중소기업 중앙회는 5일 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을 이달부터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에 포함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제공자’로, 보험 모집인, 학습지 외관원, 배달원, 학원 강사, 간병인, 직업 운동가, 예술인 등 30만 명에 이른다.

이들 무등록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이 없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와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문의 062-955-9966.

/박정욱기자 jwpark@

자연속애
녹색한우

믿을 수 있는 자연속애 녹색한우촌
한우의 옛정성 그대로입니다

적당히 찢기 찢기 씹히는 미각과 고소한 향은
한우목장이 갖는 특유의 맛입니다.
부위마다 독특한 맛이 있어 어떠한 요리를
하여도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키운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한우를 화순 축협 자연속
녹색한우촌에서 직접 구매하여
좋은 사람들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연목포
GS스키 주유소
금호타이어
신기교차로
부서생곡명
부영6차
화순축협 자연속애 녹색한우촌
화순전대병원

넓은 주차장 원비

자연속애 녹색한우촌 ☎ 0611-374-0092/371-7000

회식 및 단체예약
회갑, 칠순, 기업단체, 각종 사교모임 등 인원예에 따른 단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좌석수 300석/소형, 대형를 15개 보유)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원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